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63호 【루게 제23380호】 주체100(2011)년 3월 4일 (금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현대적으로 꾸려진 평양남새과학연구소와 평양화초연구소를 현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현대적으로 꾸려진 평양남새과학연구소와 평양화초연구소를 현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홍석형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김경희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성택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태종수동지가 동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평양원에지도국 국장 공덕창동지를 비롯한 관계부문 일군들과 연구소들의 책임일군들이 맞이하였다.

《최첨단을 돌파하라!》는 당의 구호를 높이 받들고 과학연구 사업을 줄기차게 벌리고있는 평양남새과학연구소와 평양화초연구소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인민들의 식생활과 문화정서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남새 및 화초연구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먼저 평양남새과학연구소를 현지도하시였다.

평양시 교외에 자리잡고있는 평양남새과학연구소는 총부지면적이 50만㎡로서 첨단연구 및 생산설비를 갖춘 수많은 온실들과 넓은 면적의 연구포장들을 가지고 연구사업과 생산을 동시에 진행하는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남새과학연구기지이다.

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인민들의 식생활과 건강증진에 절실히 필요한 각종 남새들을 더 많이 생산해내자면 최신과학기술에 의거한 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연구 및 생산기지들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건하였을뿐 아니라 생산성과 영양가가 높은 여러가지 남새품종들에 대한



과학연구사업과 생산에서 많은 성과들을 달성하였다.

평양남새과학연구소는 작물들의 물과 비료주기, 온습도 등 모든 작업공정들을 컴퓨터로 조종하는 최신식남새연구소이다.

연구소의 연구집단은 온실오이 19호, 온실도마도 15호를 비롯한 20여개의 작물에 50여개의 품종을 새로 육성하고 무난방막온실에서 겨울철가두배추생산기술을 비롯하여 20여건의 새 기술을 개발하여 종전에 비해 생산성을 2배이상으로 높이는 눈부신 기적을 창조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수경온실과 태양열 박막온실을 비롯한 연구소의 여러곳을 오랜

시간에 걸쳐 돌아보시면서 과학연구 및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온실마다에서 푸르싱싱하게 자라고있는 먹음직스러운 오이, 도마도, 고추를 비롯한 열매남새들과 가두배추, 부추, 진채 등 잎남새들을 보시면서 연구소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최첨단을 돌파할데 대한 당의 구호를 높이 받들고 현대적인 온실들을 훌륭하게 꾸려놓았으며 과학연구사업에서 자랑찬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연구소에서 매 포기마다에 영양액을 주입하여 남새를 키워내는 첨단기술생산 체계를 확립하고 종전의 태양열온실에

비해 온도를 5℃ 이상 높여 안전하게 남새를 생산해내는 무난방온실들을 꾸려놓음으로써 남새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일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놓은데 대해 기쁨을 감지 못하시면서 과학자, 기술자들의 비상한 창조정신과 애국열의를 높이 치하하시였다.

연구소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새로 연구하여 생산해낸 원형 및 반원형가지들과 붐무우, 단고추, 붉은통가두배추, 푸른꽃가두배추, 흰갓, 향미나리 등 남새들을 주의깊게 보시면서 인민들의 식생활과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튼튼한 과학기술적토대를 마련하고 남새생산을 늘여가고있는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하시면서 인민에 대한 그들의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평양남새과학연구소에서 여러가지 남새품종들을 새로 육성해내고 세계를 뒤흔들고 올라설수 있는 최첨단기술을 소유한것은 이곳 일군들과 과학연구집단이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을 세계를 보면서 과학연구성과로 강성대국건설위업을 빛내일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운다고 하시면서 이 자랑찬 성과는 과학기술을 경제강국건설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뚜렷한 파시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연구소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같이 높은 당성, 혁명성, 인민성을 지니고 우리 당의 최첨단들과 사상을 철저히 구현해나간다면 나라의 모든 부문을 짧은 기간내에 최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획기적인 전변을 이룩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더 높은 곳으로 더 빨리 비약하려는 이들의 비상한 창조정신을 다시금 높이 치하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평양남새과학연구소는 나라의 남새생산을 늘이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시면서 연구소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남새연구 및 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확고히 세우고 최신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집단주의를 철저히 구현하고 과학연구사업과 생산실천을 밀접히 결합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종합비타민이라고 말할수 있는 남새는 사람들의 식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식품일뿐 아니라 각종 병을 예방하고 장수를 도모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연구소에서는 우리 인민의 식생활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각종 남새의 생산성과 영양가를 높이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계속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현대적으로 꾸려진 평양남새과학연구소와 평양화초연구소를 현지도하시였다



### 1 면에서 계속

생산실천은 과학기술발전의 원천이고 추동력이며 과학연구의 결과를 검증하는 최고기준이라고 하시면서 연구소에서는 이미 이룩한 과학연구성과들을 생산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남새연구와 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과학연구 및 생산에 필요한 조건들을 충분히 마련해주며 과학자, 기술자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현재 각종 남새연구와 생산에서 큰 은을 내고있는 수경온실과 같은 최첨단 기술이 도입된 온실을 짧은 기간에 하나 더 건설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건설에

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크나큰 은덕을 베풀어주시였다.

평양남새과학연구소에 건설된 현대적인 온실들은 지식경제시대의 요구를 구현한 실리있는 남새생산기지라고 하시면서 이와 같은 온실들을 여러곳에 일떠세워 우리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들을 더 많이 공급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남새과학연구 및 생산에서 다시 한번 비약을 일으키자면 이 부분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주체혁명위업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강한 의지,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복무정신을 지닌 견결한 혁명가, 애국자가 되어야 하며 전문지식에 정통한 능력있는 과학기술의 창조자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평양남새과학연구소

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생산과 밀접히 결부된 과학연구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려 우리 인민을 이 세상에서 제일 잘살게 하려는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이어 평양화초연구소를 현지도하시였다.

어버이장군님께서 몸소 터전을 잡아 주시고 연구사업에 필요한 설비들을 일식으로 갖추어주신 현대적인 평양화초연구소는 수도시민들의 문화정서생활에 크게 이바지하는 화초연구 및 생산기지이다.

군인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건설된 평양화초연구소는 운송도를 비롯한 모든 작업공정들이 컴퓨터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조절되는 현대적인 온실을 가지고있는 최신식 화초

연구소이다.

총부지면적이 4만여m<sup>2</sup>에 달하는 화초연구소에서는 우리 나라를 백화만발한 사회주의지상낙원으로 전변시키시려는 어버이장군님의 높으신 뜻을 심장깊이 새긴 과학자, 기술자들의 불타는 열정과 노력에 의하여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자라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갖가지 꽃들이 재배육종되고있다.

연구소에서는 조직배양에 의한 화초 번식방법을 확립한것을 비롯하여 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훌륭히 해결함으로써 화초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킬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전경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생물공학연구소실을 비롯한 연구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과 연구사업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대화초원을 방불케 하는 온실들을 바라보시며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한 현대적인 화초연구기지가 마련되는데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들을 재배육종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줄수 있게 된데 대하여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그윽한 향기를 가득히 풍기며 온실마다 활짝 피어있는 수많은 꽃들을 일일이 보아주시면서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들에게 아름다운 꽃을 안겨주기 위하여 지혜와 정열을 다 바치고있는 연구소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비롯한 전체 종업원들의 수고를 치하하시였다.

### 3 면으로 계속





# 위 대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현대적으로 꾸려진 평양남새과학연구소와 평양화초연구소를 현지도하시였다



### 2 면 에 서 계 속

오래동안 화초연구사업에 종사하면서 수많은 연구성과를 이룩한 인민과학자, 교수, 박사인 연구사 리응호동무를 비롯한 과학자, 기술자들을 친히 만나 시여 그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금수강산 삼천리인 우리 조국에 온갖 꽃이 만발하게 하자면 화초재배에 계속 큰 힘을 쏟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연구소 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사람들의 정서생활

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꽃을 잘 가꾸고 아름답게 피워야 도시와 마을을 문명하게 꾸릴수 있으며 인민들에게 문화정서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하여줄수 있다고 하시면서 연구소에서는 화초연구사업을 계속 힘있게 벌리며 특히 꽃재배를 과학화, 공업화하여 꽃생산을 늘여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아름다움의 상징인 꽃을 우리 인민들은 예로부터 사랑하고 가정과 마을들에 화분과 꽃밭을 만들어놓고 즐겨 가꾸어 오고있다고 하시면서 생활을 아름답게 하고 정서를 풍만하게 해주는 꽃들을 더 많이 심고 가꾸는 한편 시내의 곳곳에 꽃밭들을 차려놓고 잘 운영하여 인민

들에게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들을 안겨 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사람은 꽃을 사랑하고 꽃속에서 살아야 쾌일에 대한 희망과 신심에 넘쳐 생활을 아름답게 꾸려갈수 있다고 하시면서 향기뿐 아니라 정서를 주고 아름다움을 주는 꽃을 사회적으로 더 많이 심고 가꾸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물질기술적도대가 굳건히 축성된 평양 화초연구소를 가지고있는것만큼 이제 화초생산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화초생산을 더욱 늘여 온 나라에 백화가 만발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수도시민들을 비롯한 우리 인민들이 갖가지 꽃을 가꾸며 문화적인 환경에서 고상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게 하자는것이 당의 의도이고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연구소의 종업원들이 당의 의도를 잘 알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섬으로써 화초연구와 재배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의 비상한 정신력이 총발동된 결과 강성대국의 면모가 갖추어지고있는 환희에 넘친 격동적인 시기에 평양남새과학연구소와 평양 화초연구소가 선군시대의 자랑스러운 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섰다고 하시면서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한 생활에 이바지하는 또 하나의 귀중한 재부를 마련하는데 크게 공헌한 군인건설자들과 종업원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고 그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군인건설자들과 평양남새과학연구소와 평양화초연구소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에 속추치는 걱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강성대국대문을 열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위 대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현대적으로 꾸러진 평양남새과학연구소와 평양화초연구소를 현지도하시였다





# 위 대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 현대적으로 꾸러진 평양남새과학연구소와 평양화초연구소를 현지도하시였다





# 위 대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 현대적으로 꾸러진 평양남새과학연구소와 평양화초연구소를 현지도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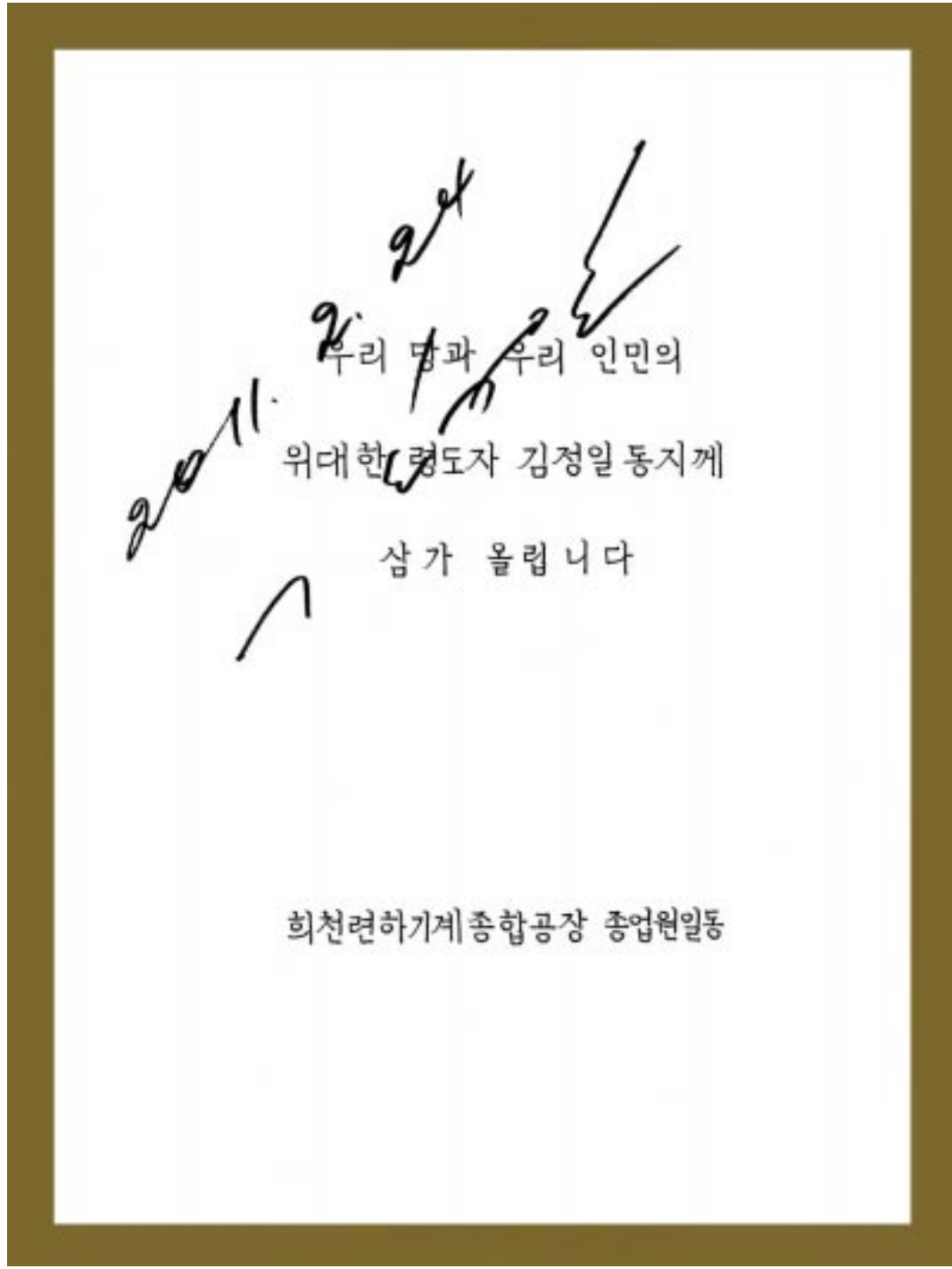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 희천련하기계종합공장 종업원들이 삼가 올린 편지를 보시고 친필을 보내시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희천련하기계종합공장 종업원들이 삼가 올린 편지를 보시고 은정어린 친필을 보내시었다.

〈 2011. 2. 24 정 일 〉

희천련하기계종합공장 종업원들은 정보산업시대의 표본공장으로 꾸러주시고 나아가 길에 활히 밝혀주시는 김정일장군님의 현지말씀을 결사관철해나갈 맹세를 담아 다음과 같은 편지를 삼가 올렸습니다.



희천련하기계종합공장 종업원들

##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삼가 올립니다

새해 정초부터 초강도행군길을 걸고 걸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난해 12월 정보산업시대의 표본공장으로 변모된 우리 공장에 찾아오시어 로동계급의 수고를 그처럼 높이 평가하시면서 은정넘친 감사를 주신데 이어 남포유리병공장에 첨단수준의 제빙설비를 만들어 보강한 로동자, 기술자, 일꾼들에게 또다시 보내주신 감사를 무한한 행복과 격정속에 접한 우리들은 사랑과 은정을 거듭 베풀어주시는 어버이장군님께 다함없는 고마움을 아뢰고싶어 삼가 이 편지를 올립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현지지도하신 공장이 하루아침에 세계를 굽어보는 지식경제시대의 새 이름, 새 모습으로 세상을 들뜨다놓으니 그 감격과 기쁨은 하늘을 찌를 듯 높는데 오늘은 또다시 응당 해야 할 일을 한 우리들에게 감사까지 보내주시니 이 세상 그 어디에 비길수 없는 그 사랑, 그 믿음에 초추치는 격정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 어떤 첨단설비도 척척 만들어내는 대기계제작공업기지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걸쳐들수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바쳐오신 심혈과 로고가 우리들의 가슴에 뜨겁게 어려웁니다.

총포성이 울부짖던 조국해방전쟁시기 최고사령부작전대우에서 기계공장의 머전을 잡아주시고 기계에서 밤이 나오는고 췌지는 종파분자들의 책동을 짓부시며 주체적인 기계공업의 위대한 역사를 개척해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자속으로 우리는 우리 공장이 정보산업시대의 표본공장으로 멋있게 전변되었습니다.

희천에서 CNC만세소리가 터질 날이 멀지않았다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높이신 리상이 이렇게도 빨리 현실로 펼쳐질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드넓은 생산현장에 CNC기계바다를 펼친 천지개벽된 새 공장의 주인이 되고보니 오늘을 위하여 걸고 걸으신 장군님의 숭고한 영상이 어려와 가슴저미도록 눈물이 잔주쳐 오릅니다.

강성대국건설을 진두에서 지휘하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에네르기결약형 건물현대화와 설비들의 CNC화를 하우와 같이 관심하시고 걸음을 박차를 가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오늘과 같은 놀라운 현실로 꽃피날수 있었습니.

경애하는 장군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잡초들만 무성할 곳에 머전을 잡아주시 때로부터 16차례나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우리 나라 기계공업의 어머니공장의 빛나는 전통을

만들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혁명력사가 세기와 더불어 변함없이 흐르게 해주신 분은 바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이십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1998년 6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면서 열어붙었던 우리들의 심장을 따뜻한 손길로 녹여주시고 생활활화의 넓은 길을 열어주시는 력사의 그날로부터 여러 차례나 공장을 찾아주시면서 어머니공장의 전통을 계속 살려나가도록 주실수 있는 온갖 육체적인 사랑과 은정을 다 베풀어주시었습니다.

2002년 7월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들이 만든 수자식총성반을 친히 보여주시고 이제는 기계공업을 현대화할 때가 되었다고 하시면서 현대화, 과학화의 불씨를 안겨주시고 2007년 1월에 다시 오시어서는 남들을 따라가려고만 할것이 아니라 앞서서 나가고 올라서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세계를 더디고 올라설 든든한 배신을 안겨주시었습니다.

지난해 3월 또다시 공장에 선군혁명명도의 자욱을 새기신 어버이장군님께서는 새로 개발한 CNC공작기계들을 보여주시고 첨단을 돌파하였으니 이제는 《최첨단을 돌파하라!》는 구호를 들고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들을 최첨단들과의 선구자로 내세워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최첨단들과사상을 내놓으시고 우리의 설비,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으로 자동화된 유리병생산설비를 완성하도록 정력적으로 령도하시어 주체공업의 위력을 다시한번 힘있게 떨치도록 하여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2009년 5월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정보산업시대의 표본공장으로 만들때 대한 영예로운 파업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시면서 건물현대화와 설비현대화에서 나서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시고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들이 방대한 공사과제를 놓고 조급이라도 주저할새라 지난해 5월에는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에서 곁사람인 피로를 후실사이드 없이 표본공장건설과 설비현대화정형을 일일이 로해하시고 걸리고있는 문제들을 모두 풀어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모신 끝없는 감격과 격정에 넘쳐 현지말씀관철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우리들은 무한대한 정신력을 총괄시켜 단 몇개 월동안에 12개 락을 가진 종전건물의 천정을 들어내고 두면으로 된 단열지붕으로 교체하였으며 공기조화체계를 완성하여 에네르기결약형

건축물로 전환시켰습니다.

또한 설비들을 우리 식의 CNC설비로 개조하여 외에도 있어서나 내용이 있어서 세상에 대고 소리치며 자랑할만한 CNC화된 지식경제시대의 표본공장으로 그 면모를 일신시키는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였습니.

참으로 지난해에 일어난 경이적인 사변들과 함께 최첨단들과전에서 거둔 위대한 승리는 우리들을 최첨단들과전의 선구자로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 정력적인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습니.

자라거나 마음속에 그리며 뵈고싶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최첨단들과전의 대승리를 온 세상에 선포한 크나큰 감격과 행복에 넘쳐있는 우리들은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CNC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더 높은 과학기술고지를 기어올림할 철석같은 맹세로 가슴 불태우고있습니다.

우리들은 혁명의 년대들마다에 공작기계생산으로 우리 당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 온 전세대로 로동계급의 투쟁정신과 일본새로 살며 투쟁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말씀대로 CNC기술개발을 다그치고 고숙화, 정밀화, 지능화된 고성능공작기계생산을 끊임없이 늘어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기계설성에 힘을 넣으며 대중적기술혁신운동과 기술능수준을 높이기 위한 빈바람을 일으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절세위인들의 발자취가 스며있는 영명의 일터에서 일하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공장 앞, 거리와 마을을 더 알뜰히 꾸리고 관리하여 21세기 표본공장의 지위를 확고히 고수하며 로동계급의 피와 땀으로 창조한 공장의 모든 재부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선군시대의 참된 애국자가 되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 장군님께서 건강하시어 온 나라 가정의 행복이 꽃피고 강성대국의 승리의 날도 앞당겨주소 있습니다.

인민들의 리상이 현실로 꽃피게 될 올해에 최첨단들과전의 승리를 위하여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희천련하기계종합공장 로동계급이 드립니다 주제 100 (2011)년 1월 29일

### 전국의 농근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에게 보내는 호 소 문

#### 전국의 농근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에게 보내는 호 소 문

오늘 우리들은 천만근민이 백두의 선군령장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미래에 대한 신심에 넘쳐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격동적인 시기에 전국선군시대농근맹원성자회의를 가지었다.

회의에 참가한 우리들은 사회주의농촌건설과 나라의 농업발전, 농업근로자들의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겨안으면서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오늘의 대고조전군에서 농업근로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다시금 절감하였으니 기어이 올해농사에서 대혁신을 일으키는 맹세를 다지었다.

농사혁명방침, 농공사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은 농업생산에서 변혁을 가져오기 위한 결정적조건이다.

모든 농업근로자들은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온몸으로 받들어주고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생산돌격전을 드세차게 벌려나가자.

어디서나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높여야 전국적인 알곡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으며 인민들의 식량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협동농장들에서 자체의 실정에 맞게 정보당 수확고를 높일수 있는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어김없이 실현해나가자.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이는 근본비결은 주체농법의 요구에 맞게 농업생산을 고도로 과학화하는데 있다.

농사혁명방침, 농공사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은 농업생산에서 변혁을 가져오기 위한 결정적조건이다.

모든 농업근로자들은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온몸으로 받들어주고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생산돌격전을 드세차게 벌려나가자.

어디서나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높여야 전국적인 알곡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으며 인민들의 식량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협동농장들에서 자체의 실정에 맞게 정보당 수확고를 높일수 있는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어김없이 실현해나가자.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이는 근본비결은 주체농법의 요구에 맞게 농업생산을 고도로 과학화하는데 있다.

어버이수령님의 부강조국건설명령을 꽃피우고 내 나라, 내 조국의 존엄과 기상을 만발케 떨치게하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결심이며 세계앞에 우뚝 선 연한 선군조선의 드림있는 신념이고 의지이다.

이 력사적위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천만근민이 떨쳐나서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에서 비약과 기적이 창조되고있는 오늘 나라의 싹들을 책임진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심장은 파연이렇게 불타야 하겠는가.

시대의 이 엄숙한 물음앞에 우리들이 대답할 때는 왔다.

농사혁명방침, 농공사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은 농업생산에서 변혁을 가져오기 위한 결정적조건이다.

모든 농업근로자들은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온몸으로 받들어주고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생산돌격전을 드세차게 벌려나가자.

어디서나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높여야 전국적인 알곡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으며 인민들의 식량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협동농장들에서 자체의 실정에 맞게 정보당 수확고를 높일수 있는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어김없이 실현해나가자.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이는 근본비결은 주체농법의 요구에 맞게 농업생산을 고도로 과학화하는데 있다.

농사혁명방침, 농공사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은 농업생산에서 변혁을 가져오기 위한 결정적조건이다.

모든 농업근로자들은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온몸으로 받들어주고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생산돌격전을 드세차게 벌려나가자.

어디서나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높여야 전국적인 알곡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으며 인민들의 식량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협동농장들에서 자체의 실정에 맞게 정보당 수확고를 높일수 있는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어김없이 실현해나가자.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이는 근본비결은 주체농법의 요구에 맞게 농업생산을 고도로 과학화하는데 있다.

전국의 농근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이여! 우리 심장에 손을 대고 생각해보자.

김일성민족의 후손들이 우리들이 인민들에게 뉘얼밤에 고기국을 먹이시려 한평생 로고를 다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념원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깨닫는 길에서 부족했것, 어려운 조건을 내세운다면, 장군님 은덕으로 천지개벽을 이룩한 선군의 대지에서 우리의 힘으로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어찌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을 멎듯이 바라볼수 있겠는가.

농사혁명방침, 농공사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은 농업생산에서 변혁을 가져오기 위한 결정적조건이다.

모든 농업근로자들은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온몸으로 받들어주고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생산돌격전을 드세차게 벌려나가자.

어디서나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높여야 전국적인 알곡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으며 인민들의 식량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협동농장들에서 자체의 실정에 맞게 정보당 수확고를 높일수 있는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어김없이 실현해나가자.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이는 근본비결은 주체농법의 요구에 맞게 농업생산을 고도로 과학화하는데 있다.

농사혁명방침, 농공사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은 농업생산에서 변혁을 가져오기 위한 결정적조건이다.

모든 농업근로자들은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온몸으로 받들어주고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생산돌격전을 드세차게 벌려나가자.

어디서나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높여야 전국적인 알곡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으며 인민들의 식량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협동농장들에서 자체의 실정에 맞게 정보당 수확고를 높일수 있는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어김없이 실현해나가자.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이는 근본비결은 주체농법의 요구에 맞게 농업생산을 고도로 과학화하는데 있다.

우리들은 전국의 농근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올해 농업생산에서 대혁신을 일으켜 식량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이바지함으로써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선군시대 애국농민의 본분을 드러내자라라는것을 확인하면서 이 호소문을 보낸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무엇보다도 농사에서 혁신을 일으켜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전체 농근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이여! 력사적인 당대표자회의정신을 받들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며 장군님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수령결사옹위의 진위투사가 되자.

당의 종자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감사

농사혁명방침, 농공사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은 농업생산에서 변혁을 가져오기 위한 결정적조건이다.

모든 농업근로자들은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온몸으로 받들어주고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생산돌격전을 드세차게 벌려나가자.

어디서나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높여야 전국적인 알곡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으며 인민들의 식량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협동농장들에서 자체의 실정에 맞게 정보당 수확고를 높일수 있는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어김없이 실현해나가자.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이는 근본비결은 주체농법의 요구에 맞게 농업생산을 고도로 과학화하는데 있다.

농사혁명방침, 농공사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은 농업생산에서 변혁을 가져오기 위한 결정적조건이다.

모든 농업근로자들은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온몸으로 받들어주고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생산돌격전을 드세차게 벌려나가자.

어디서나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높여야 전국적인 알곡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으며 인민들의 식량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협동농장들에서 자체의 실정에 맞게 정보당 수확고를 높일수 있는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어김없이 실현해나가자.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이는 근본비결은 주체농법의 요구에 맞게 농업생산을 고도로 과학화하는데 있다.

#### 전국선군시대농근맹원성자회의의 진행

【평양 3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 전국선군시대농근맹원성자회의의 3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

회의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놓여져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창조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회의장에서 울려퍼졌다.

회의장에는 또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선군혁명명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장군님을 살려서 결사옹위하는 농민영웅이 되자!》라는 구호들이 울려퍼졌다.

내각총리 최영림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룡해동지와 리경식농업상, 관계부서 일꾼들, 도, 시, 군당위원회일꾼들, 모범적인 농근맹원들, 농업근로자들이 회의에 참가하였다.

회의는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었다.

회의에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명도를 높이 받들고 지난기간 농근맹원성자회의의 성과와 경험을 총화하고 농업근로들과 농근맹원들이 당의 농업혁명방침 관철에서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가 토의되었다.

농사혁명방침, 농공사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은 농업생산에서 변혁을 가져오기 위한 결정적조건이다.

모든 농업근로자들은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온몸으로 받들어주고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생산돌격전을 드세차게 벌려나가자.

어디서나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높여야 전국적인 알곡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으며 인민들의 식량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협동농장들에서 자체의 실정에 맞게 정보당 수확고를 높일수 있는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어김없이 실현해나가자.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이는 근본비결은 주체농법의 요구에 맞게 농업생산을 고도로 과학화하는데 있다.

리명길 농근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황해북도농근맹위원회 장 정명선, 황해남도농근맹부위원장 량창현, 강서구역농근맹위원장 하용남, 고산파수농장 농근맹위원장 신창렬, 태천군 은흥협동농장 초급농근맹위원장 백성원,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관리위원장 송운희, 작업반장 김주봉, 정철우, 강서구역 청년협동농장 민경남, 은천군 량당농장 류장현, 전천군 무평협동농장 분장장 리철진, 농업과학원 농업정보기술연구원 연구사 백철남, 농근맹원들이 함추군 동봉협동농장 한재춘, 봉천군 덕승협동농장 장성순, 선천군 명사농장 차상식, 봉성구역 화성산전원협동농장 양금실, 은천군 서화협동농장 트랙터운전수 김경선, 영주군 북흥협동농장 부락농근맹위원장 김영희, 은산군 류동리 농근맹해설강사 양혜숙, 농근맹초급단체인원장들이 합동시 흥남구역 마전협동농장 백순희, 대흥단군 흥안농장 박병수, 형제산구역 천남남대 전문협동농장 김춘향이 드로하였다.

농사혁명방침, 농공사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은 농업생산에서 변혁을 가져오기 위한 결정적조건이다.

모든 농업근로자들은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온몸으로 받들어주고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생산돌격전을 드세차게 벌려나가자.

어디서나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높여야 전국적인 알곡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으며 인민들의 식량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협동농장들에서 자체의 실정에 맞게 정보당 수확고를 높일수 있는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어김없이 실현해나가자.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이는 근본비결은 주체농법의 요구에 맞게 농업생산을 고도로 과학화하는데 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농근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제시하 강성대국의 승리를 확정지키는 확신을 지니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격전에 과감히 떨쳐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농근맹조직들이 올해

농사혁명방침, 농공사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은 농업생산에서 변혁을 가져오기 위한 결정적조건이다.

모든 농업근로자들은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온몸으로 받들어주고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생산돌격전을 드세차게 벌려나가자.

어디서나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높여야 전국적인 알곡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으며 인민들의 식량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다.

협동농장들에서 자체의 실정에 맞게 정보당 수확고를 높일수 있는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어김없이 실현해나가자.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결정적으로 높이는 근본비결은 주체농법의 요구에 맞게 농업생산을 고도로 과학화하는데 있다.

#### 전국선군시대농근맹원성자회의의 참가자일동



# 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그 이름 높이 떨치는 세계적인 대창작기지

##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만수대창작사 창작가들과 종업원들

### 현명한 령도와 보살피심속에 창작의 나래를 펼치며

뜨거운 믿음과 사랑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소문도 없이 문득 만수대창작사를 찾아 주신 지난 1월의 그날은 이곳 창작가들이 보물창고처럼 보물처럼 출몰하여 사업에 열중하고있던 평범한 하루였다.

평일에 또 뵈고싶던 경애하는 장군님, 오시면 아름다운 꽃다발을 삼가 드리며 감사의 인사도 올리려고있었지만 너무도 뜻밖이어서 창작가들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창작실에서 임는 옷차림 그대로 경애하는 장군님을 맞이하였다.

하나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조금도 개의치 않으시고 그들모두를 따뜻한 환眸에 안아주시며 미술작품들도 하나하나 보아주시고 소박한 노래도 들어주시며 주실수 있는 온갖 온정을 다 안겨 주시었다.

빛내어나가야 한다고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미술은 시대를 상징하며 후세에 길이 전해지는 기념비적창작물들을 남기며 그것으로 하여 인류역사에 다른 예술이 할수 없는 기여를 하게 된다.》

만수대창작사는 조선화와 유화, 조각과 보석화, 출판미술과 도자공예, 건축미술과 서예 등 미술의 모든 분야를 다 포괄하고있는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나라의 종합적인 대미술창작기지이다. 유명한 창작가들을 적지 않게 배출한 창작사는 실력있고 탄탄하게 세사들의 집단이며 우리 혁명의 년대기마다에서 붓대로 커다란 공헌을 세운 공로있고 력사가 있는 예술 집단이다.

만수대창작사는 그 란생부터 결코 범상치 않다. 조선의 영웅적기상과 불멸의 투지의 상징으로 불리우는 천리

마와 더불어 만수대창작사가 태어났고 만수대창작사와 더불어 한달음에 천리를 가는 조선의 천리마의 영웅한 형상이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 땅에 세계를 격동시키며 천리마 대고조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던 주체 48 (1959)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천리마동상건립을 발기하시고 조각창작단을 무어주시였으며 그해 11월 17일 천리마동상의 첫 구조조안을 지도하여주시었다.

바로 이날이 만수대창작사 창립일로 력사에 아로새겨지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창작집단은 영웅조선의 기상으로 대담하게 구상하고 용감하게 실천하여 천리마동상을 성과적으로 건립하였다.

뜻 잊을 력사의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천리마동상은 우리 나라의 위력을 시위하는데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천리마동상을 조각한 동무들은 다 영웅이라고 높이 치하해주시었다.

영웅, 그 높이는 부름속에 만수대

창작사는 천리마조선의 미술집단답게 자기의 첫걸음을 내질렀고 구름을 차며 한달음에 천리를 가던 천리마처럼 눈신 발전의 길을 질풍같이 수놓아왔다.

그후 만수대창작사는 나라의 종합적인 미술창작기지로 성장강화되었으며 이때로부터 주체미술의 일대 전성기가 펼쳐지게 되었다. 로동계급의 수령형상리론을 창시하시고 수령형상 창조원칙도 하나하나 밝혀주시며 몸소 창작현장을 찾아주시어 수령님의 영상을 잘 형성하는것은 미술가들의 숭고한 임무이라고 가르쳐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미술에서 주체를 확립하며 조선화를 기본으로 우리 미술을 발전시키는데 대한 독창적인 방향을 제시하시면서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는 창작사의 자랑스러운 열혈의 갈고갈고 마다에 력력히 아로새겨져있다.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옮겨 반영한 혁명적이고 참다운 미술은 사람들을 혁명과 건설에 힘있게 추동하는 위대한 수단이다.

만수대대기념비를 비롯하여 주체사상탑과 개신교 그리고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당과 혁명의 령도자로 높이 모시는데서 커다란 공적을 세운 조선화 《삼지연의 새벽길》, 오늘날도 조선화의 생활력을 소리높이 파시하는 조선화 《강선의 저녁노을》, 조선의 자랑 고려창자기...

충정을 바치였으며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의 마음속에 간직된 숭고한 화폭인 수령님의 태양상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빛나는 영상을 력사에 새기었다.

대형벽화와 선전화로 형성된 숭고한 화폭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대형조선화 《피눈물의 해 1994년》, 조선화 《항일의 혈전마리》...

이것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 할 혁명의 길에서 일련단신 당과 령도자와 운명을 함께 해나가는 이곳 창작가들의 고귀한 충정의 결정체였다.

만수대창작사 일군들과 창작가, 종업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창작사를 선군시대의 맛이 나게 훌륭히 꾸려놓았다.

만수대창작사는 오늘 창작사업으로 부터 모든 경영활동에 이르기까지 세계 요구에 맞게 컴퓨터화, 정보화되었으며 세계급의 현대적인 종합 미술창작기지로 전변되었다.

지난 50여년간 만수대창작사는 주체미술의 위력을 세계에 널리 시위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중국, 라오스, 베트남 등 수많은 나라들에 진행된 미술전람회와 전시회들과 세계 여러 나라들에 건립된 기념비와 동상, 벽화들을 통하여 주체미술의 위력을 세계에 떨치었다.

수십차례에 걸쳐 온정어린 감사도 안겨주시며 곁을곁을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만수대창작사에서는 수십 차례 강연합기연소 등 대고조전투쟁들에 달려나간 창작가들의 충정의 세계를 습작품들마다에서 귀중히 찾아보았다.

그러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문득 곁을 곁을 멈추시고 어느 한 습작품앞으로 되돌아가시었다.

기술발전으로 그린 로동자혁신 자초상이었다.

황철의 들끓는 현장에서 창작한 용해공의 모습은 강성대국건설에 떨치나선 로동계급

을 찍어주시였으면 하는 그의 소원도 헤아려보시고 영웅동무는 내일에 와있으라고 하시면서 한량없는 온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을 세월이 천년만 해도 다들 잊을수 없으리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날 예술소조공무원대에 오른 100명에 가까운 출연자들속에서 그를 또다시 알아보시었다.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는 자리에 공로있는 창작가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면서 합창도 하는가고 귀속달로 다정히 물어도 주시었다.

참으로 그것은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할수 없고 더더욱 뜨거워만지는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아버지사랑이 새긴 또 하나의 감동적인 화폭이었다.

한 조각가를 잊지 않으시고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해만 가는것이 우리 장군님의 혁명적사상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공훈조각 창작단에 들어서시였을 때였다.

창작사의 책임일군은 경애하는 장군님께 김일성상관판이며 로동계급인 인민예술가 로동화 동무를 소개해드리려고 하였다.

그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자신께서는 이 동무를 알고있다고 하시며 그를 정중하게 바라보시었다.

순간 로동화동무는 눈곱이 수근 달아올랐다.

이제는 머리에 백발이 서리고 70개계를 넘어섰건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언제나 그를 잊지 않고계시었다.

만수대대기념비를 건립할 때에 내세워주시고 언제나 그는 기념사진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창작가만 거의 수백명이 된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그야말로 인재부자라고, 나라의 종합적인 미술창작기지만 만수대창작사는 지난 기간 주체미술의 대전성기를 마련하는데서나 대기념비적건축물들을 일떠세우는데서나 크게 공헌한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속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3중3대혁명붉은기 공훈 조각창작단을 찾은 우리가 대창작실에 들어섰을 때는 예상외로 조용한 분위기였다.

그러나 대창작실의 여기저기서 언뜻언뜻 안겨오는 조각작품들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흥분으로 달아올랐다.

바로 여기서 얼마나 많은 시대의 기념비들이 태어났던가.

홀려간 지난 년대들과 오늘이 벽한 시대를 함께 호흡할수 있는 거창한 시공간속에 있다는 느낌이 우리의 가슴속에 새로운 충동을 불러일으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조각은 기념비미술의 기본형식인것으로 하여 인류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우리를 안내하면서 우호초단장은 백두산위인들의 손길아래 창작단에 위력한 창작력향상을 자랑하는데 대하여 감명깊게 이야기하는것이였다.

《우리 창작단이 거둔 가장 큰 성과는 바로 수령형상조각에서 이룩한 성과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창작단은 혁명적수평면이 확고히 서고 실력있는 집단으로 자라났습니다.》

나라의 방방곡곡에 훌륭히 건립된 대기념비들의 수령형상 조각창작단에서는 대고조의 열풍이 세차게 일고있었다.

《우리 창작가들은 자기 땅에 발붙이고 높은 세계를 보는 확고한 관점에서 명작에 대한 요구를 더욱 높이고있습니다.》

실장 김동혁동무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대창작실의 한쪽 벽에 나붙은 《명작전, 실력전》

이름이 로력영웅, 인민예술가 로동화동무도 만나보았다.

70살이 지난 나이에도 정력이 넘치는 로창작가는 홀려간 년대들을 추억속에 머물렀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 주시고 작품의 종자와 형상방향을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위대한 스승이 계시어 우리의 창조물들이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생명력을 가지는 시대의 기념비적명작으로 빛나는것입니다.》

이것은 한층을 조각작업에 바친 한 예술가뿐이 아닌 모든 창작가들의 신념의 목소리였다.

김일성훈장수훈자, 김일성상관판, 로력영웅, 인민예술가, 공훈예술가들이 많이 배출된 관공도 공로있는 집단인 공훈조각창작단, 세계에 자랑할만 한 이런 우수한 창작집단이 있어 강성대국건설에서 길이 빛날 시대의 명작들이 무수히 태어나리라하는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우리는 이곳을 떠났다.

본사기자 공로력

이런 창작사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만수대창작사가 세계급의 미술창작기지로 전변되어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많이 찾아와 관람하고있는데 이런 종합적인 대미술창작기지는 세계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미술작품전시관에서 세계 수많은 나라와 지역의 당 및 국가, 정부의 고위급인사들과 각계각층의 해외동포들, 남녀동포들이 만수대창작사를 참관하고 남긴 감사를 볼수 있었다.

이러한 창작사는 세계에서 유일무이한것이다. 창작사는 존경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미술분야의 창작가들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돌리고있는가를 그대로 실증해주고있다.

주체사상을 창작적핵심으로 하는 조선민족의 예술은 세계 예술계의 찬란한瑰寶이다.

진정으로 위대한 인민만이 낳을수 있는 재능이다.

본사기자 장정일

다시 보아주시는 현지습작품

위대한 장군님께서 만수대창작사 미술가들이 대고조전투쟁들에 나가 그린 현지습작품들을 보아주시었다.

어버이장군님께서서는 최현 발전조건설치이며 무산광산현 합기연소, 재명광산이며 천리마대강연합기연소 등 대고조전투쟁들에 달려나간 창작가들의 충정의 세계를 습작품들마다에서 귀중히 찾아보았다.

그러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문득 곁을 곁을 멈추시고 어느 한 습작품앞으로 되돌아가시었다.

기술발전으로 그린 로동자혁신 자초상이었다.

황철의 들끓는 현장에서 창작한 용해공의 모습은 강성대국건설에 떨치나선 로동계급

의 사상정신세계를 생동한 예술적형상으로 훌륭히 반영하고 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 그림을 그린 동무가 어버이수령님의 대리석상형상을 창작한 젊은 조각가라는대로 로동자맛이 나게 잘 그렸다고 높이 치하해주시었다.

완성된 미술작품도 아니고 습작품에 불과한 그림을 두고 옮기던 곁을 멈추고 다시 보아주시며 치하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사랑은 창작사의 전체 창작가들을 불러주는 창작적열정을 안고 오늘도 강성대국건설대전에에서 시대와 함께 승승고 투쟁해나가는 길을 바라시는 크나큰 믿음이고 뜨거운 고무였다.

본사기자

### 공로있는 집단의 영예를 안고

3중3대혁명붉은기 공훈조각창작단을 찾아서

작품들은 이곳 창작가들의 불붙이고 높은 세계를 보는 확고한 관점에서 명작에 대한 요구를 더욱 높이고있습니다.》

실장 김동혁동무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대창작실의 한쪽 벽에 나붙은 《명작전, 실력전》

이름이 로력영웅, 인민예술가 로동화동무도 만나보았다.

70살이 지난 나이에도 정력이 넘치는 로창작가는 홀려간 년대들을 추억속에 머물렀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 주시고 작품의 종자와 형상방향을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위대한 스승이 계시어 우리의 창조물들이 세월이 흘러도 영원히 생명력을 가지는 시대의 기념비적명작으로 빛나는것입니다.》

이것은 한층을 조각작업에 바친 한 예술가뿐이 아닌 모든 창작가들의 신념의 목소리였다.

김일성훈장수훈자, 김일성상관판, 로력영웅, 인민예술가, 공훈예술가들이 많이 배출된 관공도 공로있는 집단인 공훈조각창작단, 세계에 자랑할만 한 이런 우수한 창작집단이 있어 강성대국건설에서 길이 빛날 시대의 명작들이 무수히 태어나리라하는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우리는 이곳을 떠났다.

본사기자 공로력

유르겐 클림케 도이쉴란드그리스도교민주동맹 출신 련방의회 의원일행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만경대 조형집을 찾은 손님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혁명력사와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만경대일가분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이후에 손님들은 김일성종합대학 전자도서관 수령관, 주체사상탑, 당창건기념탑, 리무제강권철신 《푸에블로》호 등을 참관하였으며 국립교향악단의 공연을 관람하였다.

성원들이 초대되었다.

김형준 부상을 비롯한 외부성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조선과 꾸마사이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체육오락 경기도 하면서 친선의 정을 두터이하였다.

본사기자

로씨야 21세기 관현악단 평양에서 첫 공연 진행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이 3일 동명양극극장에서 첫 공연의 막을 올렸다.

관현악단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존중과 우리 인민에 대한 친선의 정을 안고 성의껏 준비한 종목들을 가지고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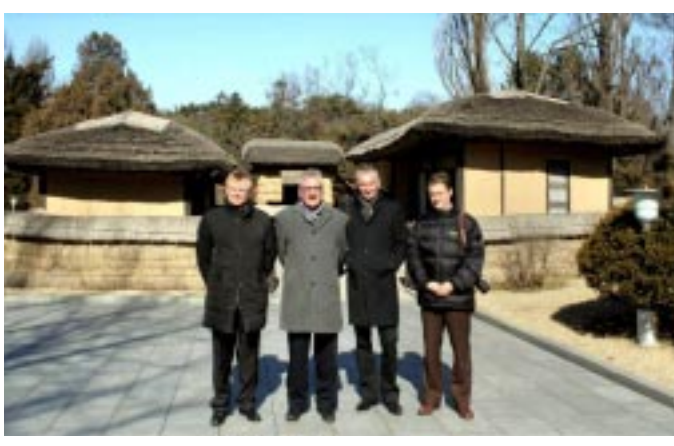
안동춘문화상, 관계부문 일군들, 만수대예술단을 비롯한 중앙예술단체 창작가, 예술인들, 예술교육부문 교원, 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관현악단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존중과 우리 인민에 대한 친선의 정을 안고 성의껏 준비한 종목들을 가지고 갔다.

안동춘문화상, 관계부문 일군들, 만수대예술단을 비롯한 중앙예술단체 창작가, 예술인들, 예술교육부문 교원, 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본사기자

### 외무성에서 꾸바공화국대사관 성원들과의 친선 모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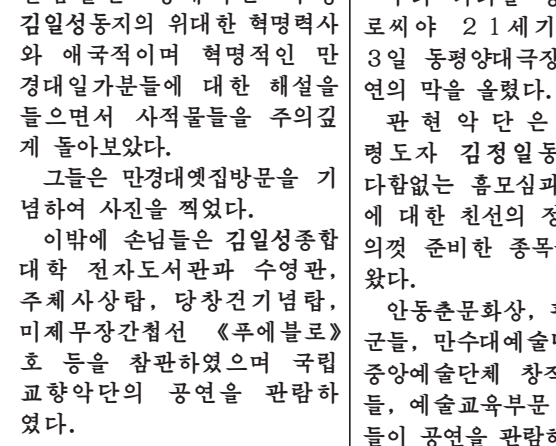
외무성에서는 꾸바공화국대사관 성원들과의 친선모임을 마련하였다. 친선모임에는 로씨야 마누엘 갈레고 문과도 주조 꾸바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초대되었다.

김형준 부상을 비롯한 외부성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조선과 꾸마사이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체육오락 경기도 하면서 친선의 정을 두터이하였다.

본사기자

### 벌가리아국경절에 즈음하여 영화 감상회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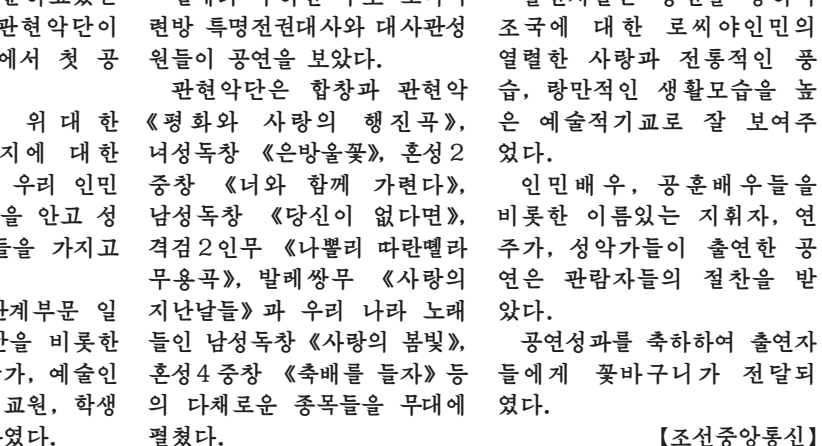
시대리대사와 대사관성원이 초대되었다.

조선벌가리아친선협회 성원들과 시내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벌가리아국영화 《벌가리아》를 감상하였다.

본사기자

### 강계시상업관리소 일군들과 봉사자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인민들에게 생활상편의를 최대한으로 보장해주는 원칙에서 봉사조직과 봉사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가기로 하여야 하겠습니다.》

강계시내 동부동의 언덕길에 세워진 빈 이채로운 광장이 펼쳐진다.

얼마전 어느 한 집앞에 멈추어선 이채로운 광장에서 《말랑, 말랑》하고 종소리가 울려나온다.

문이 열리더니 한 할머니가 나와 판매원들을 반갑게 맞이하였다.

판매원들은 할머니에게 닭알, 두부, 콩나물 등 갖가지 부식물을 안겨주었다. 그리고는 마을의 다른 집들을 찾아 이동봉사를 위한 종소리를 계속 정당에 울리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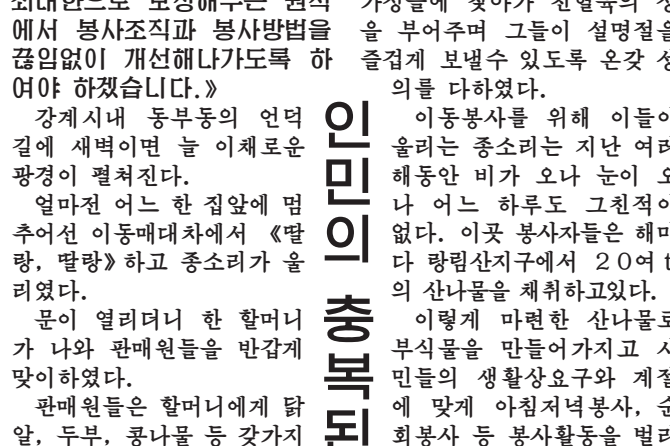
할머니는 종이 트기도 전에 지기를 찾아온 그들을 기쁜 마음으로 바래주었다. ...

올해 설명절을 맞으며 강계시상업관리소의 일군들과 봉사자들은 시민들을 위해 홍주담뽕장에서 생산한 많은 닭알과 원로기지에서 생산한 콩, 말랑산지구의 깊은 산속에 세워진 산나물로 갖가지 부식물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부식물을 이동매대에 싣고 시민의 길들을 누비며

본사기자

### 인민의 총독된 자각안고



이동봉사를 위해 이들이 올리는 종소리는 지난 여러 해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느 하루도 그치지 않았다. 이곳 봉사자들은 해마다 말랑산지구에서 20여t의 산나물을 채취하고있다.

이렇게 마련한 산나물로 부식물을 만들어가지고 시민들의 생활상요구와 계절에 맞게 아침저녁봉사, 순회봉사 등 봉사활동을 벌이고있다. 된장, 간장, 기름, 고기, 닭알 등 식료품과 갖가지 상품들을 시민의 모든 세대에 걸쳐 골고루 공급해주기 위해 말랑산지구에 뛰어들어가는 김준홍, 김승호, 변순옥, 류명옥, 정영실, 지정실, 방정희동무들을 비롯한 이곳 관리소종업원들에 대해 주민들모두가 칭찬을 아끼지 않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강계시민들의 생활상편의를 위하여 애써 노력하고있는 이들의 소행을 보고받으시고 크나큰 온정을 베풀어주시었다.

특파기자 동세웅